

한인 CEO 성공 스토리 도내 청년에 특별한 영감

22~24일 세계한인비즈니스 글로벌 한상 CEO 특강 청년 창업·글로벌 진출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컨벤션을 벗어나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CEO 초청특강을 비롯해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해외 시장에 관심 있는 전북 청년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의 신'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한국명 홍원서) 박사가 오는 22일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데니스 홍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의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인 로멜라(RoMeLa: Robotics & Mechanisms Laboratory)의 설립자다. 특히 인간형 로봇 개발과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온 석학이다.

홍 박사는 2족 보행 로봇 '아르테미스'로 국제 AI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공학의 미래와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상 CEO들이 참여하는 특강도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진행 중이다. 이 특강은 세계 각지에서 성공을 거둔 한상 CEO들이 전북 청년들에게 도전과 개척 정신을 전파하고 해외 진출 성공스토리과 시장 개척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으로부터 평생봉사상을 수상한 조시영 J&K Lee Property 회장은 미국으로 유학을 선택한 계기부터 도내 농산물을 미국 현지에서 수출하게 된 경험으로 경영학과 학생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6개 팀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우승팀에게는 재외동포청장상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글로벌 한상드립 재단이 소정의 격려금을 제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의 마지막 날인 24일,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이 자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동포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청년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 청년들에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뜻 깊은 기회"라며, "전북의 기업과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 비즈니스 현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한인비즈 교통·주차·수송 사전 모의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릴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교통·주차·수송 관련 모의훈련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주시 덕진경찰서,

덕진보건소, 덕진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덕진모범운전자회, 온누리교통봉사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대회 관계자들이 주요 내빈을 가정하고, 차량 비표를

부착한 채 삼삼문화회관 및 진수당 삼거리에서 주차 차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표가 없는 일반 차량은 중앙도서관과 보조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교내 차량 정체 시 대체 통행로도 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축! 전주매일 창간

'원대'한 품의 세계

WONDERLAND WKU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비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이는 산물 비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 기준 6만4,998원으로, 2020년 대비 5,408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4곳 지역농협 RPC 중 14곳의 지역농협이 2024년도 계약재배에 대한 비 수매가격을 확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 위치한 RPC를 포함한 4곳에서 전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일부 RPC의 올해 수매가격은 7만5,000원으로, 전년 8만1,520원 대비 6,52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RPC는 올해 수매가격을 5만3,500원으로 현재까지 가장 낮게 결정했다.

또한, 농협 RPC의 누적 적자가 수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다. 농협 RPC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농협 RPC의 당기손익은 305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전년 117억원 적자 규모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최근 4년간의 RPC의 손익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403억 흑자를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1,533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적자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인 것을 파악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비 수매가격을 위한 예산을 2021년~2023년 2조 2,000억원으로 동결했으며, 올해 예산 역시 2조 2,000억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농협에서 2024년도 산곡을 매입하면서 수매가격으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호동 중앙회장은 취임 당시 '40kg 조곡 가격 7만원 유지'를 공약한 바,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쌀 수매가격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정시모집 | 2024. 12. 31(화) ~ 2025. 01. 03(금)

입학관리과 063.850.5263~4 입학사정관실 063.850.5266 Fax 063.850.5262 원광대학교 WONGWANG UNIVERSITY



2024 남원 문화의 달 지난 18일 '2024 남원 문화의 달' 개막식에서 김관영 도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식 남원시장 등 내빈들이 무대에 등장, 개막선언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2024 남원 문화의 달 행사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사진=남원시청 제공)

"5년간 농협서 발생 직장 괴롭힘 35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35건 중 18건 중징계 민주 윤준병 의원 "엄정한 처벌토록 조직문화 개선 마련을"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맴버인 하니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간 35건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3건 등 매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행동강령 위반·갑질 등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신체적 괴롭힘과 같은 성비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8건(51%)이었으며, 정지 이상 중징계는 17건(49%)이었다. 중징계 중에는 도급업체 직원·지점 직원·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5건에 대하여 징계해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하급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과 갑질 등 11

건은 견책으로 끝나 솥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의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난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기그룹 뉴진스의 맴버 하니의 발언처럼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는'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당면과제"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하급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따돌림과 성희롱 등 온갖 괴롭힘으로 징계해지를 포함한 절반 가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지역농협 RPC벼 수매가격 지속 하락"

민주 이원택 의원 "산지쌀값 영향... 7만원 유지해야"

농협RPC가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서 사들이는 산물 비의 수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이는 산물 비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 기준 6만4,998원으로, 2020년 대비 5,408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4곳 지역농협 RPC 중 14곳의 지역농협이 2024년도 계약재배에 대한 비 수매가격을 확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 위치한 RPC를 포함한 4곳에서 전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도 일부 RPC의 올해 수매가격은 7만5,000원으로, 전년 8만1,520원 대비 6,52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RPC는 올해 수매가격을 5만3,500원으로 현재까지 가장 낮게 결정했다.

또한, 농협 RPC의 누적 적자가 수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다. 농협 RPC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농협 RPC의 당기손익은 305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이는 전년 117억원 적자 규모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최근 4년간의 RPC의 손익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403억 흑자를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1,533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적자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음에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적자개선 및 쌀 수매가격 향상에 소극적인 것을 파악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비 수매가격을 위한 예산을 2021년~2023년 2조 2,000억원으로 동결했으며, 올해 예산 역시 2조 2,000억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농협에서 2024년도 산곡을 매입하면서 수매가격으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강호동 중앙회장은 취임 당시 '40kg 조곡 가격 7만원 유지'를 공약한 바, 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쌀 수매가격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검찰총장 탄핵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의 공권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몰감' '개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뉴시스

박호석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출마자, 정책토론회 제안

박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자가 후보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자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중심의 더불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전국장애인위원장 출마자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록이 마감되어 5명의 후보가 장애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225명의 전국 장애인 대의원의 명단을 제공받은 것 외에 10,206명의 권리당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 장애인 위원장 선거는 말 그대로 감금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박 출마자는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민주당 공식유튜브를 통해 중계하고 민주당 전국위원장 후보자 소개 페이지에 링크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장애인위원회 운영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알리고 각 후보자를 비교, 평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후보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장 선거는 지난 8일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및 강제 ARS로 선거가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